

4.1(금) 석간 (인터넷 4.1(금) 06:00 이후)



보 도 자 료

- ▶ 2011. 4. 1 배포
- ▶ 총 2 쪽 (사진없음)

- ▶ 국제협력담당관 과 장 박광일
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박지혜
- ▶ 전화 : 02-2110-7431, 010-9132-9212
- ▶ 팩스 : 02-507-4755
- ▶ 메일 : parkjh@moel.go.kr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(알림마당<e-노동뉴스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“근로시간면제와 복수노조제도는 일자리 창출의 촉매가 되어야”

- 박재완 고용부장관, 주한미상공회의소 HR세미나서 오찬 연설

-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4.1.(금) 11:30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(AMCHAM) 주최 Human Resources 2011 세미나에 참석, 올해의 고용노동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.
- 이번 세미나에는 회원기업 대표 150여명이 참석하여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.
- 기조연설을 통해 박재완 장관은 최근의 고용사정과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설명하였다.
-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“「2020 국가고용전략」과 「청년 내일 만들기」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정책의 골격을 세웠지만 아직 각론을 더 다듬어 가야 한다” 고 전하며
- “특히 올해는 ‘반듯한 시간제 일자리’ 를 비롯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정착시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” 이라고 밝혔다.
- 한편, 노사관계의 목표는 ‘일자리 창출형 선진 노사관계 확립’ 이라고 강조하고,
- ‘노사의 사회적 책임’ , ‘공정한 일터’ 및 ‘성과높은 일터’ 등 작업장

혁신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을 세 가지 과제로 제시하였다.

- 특히,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안착시키고 복수노조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 현 상황을 “로켓의 1단계 연료가 분리되고 2단계가 추진되어 본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”으로 비유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.
- 7월 시행하는 복수노조제도와 관련해서는 “과도한 교섭비용이 생기지 않고, 교섭대표 결정에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” 고 전하며
- “노동조합들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놓고 서로 경쟁함으로써 복수노조가 ‘성과높은 일터’를 만들기 위한 일터 혁신의 촉매가 되어야 한다” 고 강조했다.
- 이는 노사관계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, “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제도가 일자리 창출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”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.